출입기자단 초청 송년 만찬

계속 잘하는 대통령의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.

새해에는 언론과 건강한 긴장관계만이 아니고 건강한 협력관계,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. 분위기를 바꾸려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내가 좀 잘해서 기사 쓸 때 기분이 좋게 해드리겠습니다. 계속 잘하는 대통령의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. 가슴 뭉클한 기사도 있었고 어떤 기사는 '이건 아닌데'하고 짜증도 났지만,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한 지붕 밑에 사는데 잘 만나지도 못했고 팍팍했습니다. 1년 반 동안 가슴을 탁 열어놓고 터놓고 풀어가며 사는 여유가 없었습니다.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기사를 보면 때론 열도 받지만 비행기타고 세상 한 바퀴를 같이 돌면서 '난 대통령이니까 당연하지만 기자들은 어떻게 감당 할까' 궁금했고, 참 고생이 많겠다고 생각했습니다.

금년 4월 총선이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, 뒤처리하고 새롭게 조각하고 진용 짜고 하면서 상반기 까지를 보냈습니다.

2003년을 돌이켜 보면 저도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'이게

맞다'는 생각은 들지만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2003년에는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돌팔매를 맞고 피하고 막아내느라 정신이 없었고, 2004년 상반기까지 쫓기며 지내왔습니다. 금년 4월 총선이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, 뒤처리하고 새롭게 조각하고 진용 짜고 하면서 상반기 까지를 보냈습니다. 올 하반기는 비행기를 타느라 정신이 없었고 만감이 교차합니다. 지난 2년이 지나간 것을 보면 3년은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.

앞으로 3년 뒤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중간결산 할 때가 됐는데 '왜 한 게 없을까'하면 참 미안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로 비롯된 일이 너무 많았고 나로 말미암아 생긴 변화가 많았습니다. 세상 일 이라는 게 그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. 대통령이 혼자 했다고 말할게 별로 없고 함께 서로 기여하면서 한 것을 얘기하는 이런 것이 변화라면 변화입니다. 그러니 책임도 저한테만 묻지 마세요. 그러나 앞으로 3년 뒤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나로 말미암아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고 진일보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

전 사회 각 분야에서 정말 자랑스럽고 자신 있게 자기 직업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.

내가 왜 정치를 했을까 생각할 때 제일 무거운 게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. 내년에는 자랑스러울 수 있는 정치가 되기 바랍니다.

공직사회가 있어서 한국사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맞지만 공직사회가 또 잘한 것만 있느냐고 물으면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. 기업도 밖에 나가 보면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마냥 자랑스럽기만 한 것인가. 자랑스럽

지 못한 일도 있을 겁니다.

전 사회 각 분야에서 정말 자랑스럽고 자신 있게 자기 직업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년에는 한국정치, 한국대통령이 진일보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습니다.

아직 개각에 대한 제 마음도 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결코 큰 폭이 아니라 땜질하듯 아주 조금만 할 생각입니다.